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 지리학과 정진영

저는 작년에 '이대로 대학에 가면 후회가 남을 것 같다'는 마음에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준비를 하느라 정시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걱정이 많아서 공부에 100%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원했던 대학은 아니더라도 고려하던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지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1.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조언

성공적인 재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열쇠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실전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왜 지금 자신이 힘든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 경우,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수능이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표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재수를 선택한 이유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함보다는 고3 때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후회에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별로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써준 편지에 있던 글귀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할 때 정말 멋진 사람이 되자' 저는 이 글귀가 소속이나 졸업장이 삶의 의미를 형성하게 놔두지 말고 삶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수 또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야만 의미 있는 재수가 아니라 재수를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재수에 성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과정에서 충실하면 되는 것이기에 결과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정시는 운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도 모든 과목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약한 과목, 강한 과목이 있을 텐데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오고 어떤 과목이 어려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운'적인 부분은 수험생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험생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결과를 온전히 컨트롤 할 수 없다면 결과를 생각하지 말자. 과정에서의 나 자신만 컨트롤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 공부에 대한 조언

재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습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배들이 복습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평소 제 공부 스타일과 달라 불편했습니다. 저는 몰입해서 한 과목만 하루 종일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여러 가지 과목을 하루에 조금씩 공부하러니 한 과목도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부 방법을 재수학원 시간표에 적합하게 조금 변형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균형과 몰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한 과목을 확실하게 끝내는 몰입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은 학원 시간표가 알아서 맞춰 줍니다. 다양한 과목이 적절한 비율로 일주일 시간표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을 맞추는 것은 수업이 끝난 직후에서 저녁시간 전까지 1시간~1시간 반 정도 그 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복습을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업에 온 에너지를 들여 집중했고, 수업이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머릿속으로 배운 내용을 한 번 빠르게 기억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쉬는 시간과 저녁시간 전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복습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저녁시간 이후의 자습시간은 몰입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과목을 바꿔가며 공부하면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몰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이후에는 딱 한 과목만 공부했습니다. 그 과목은 정해놓은 분량을 꼭 끝낸다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한 과목만 공부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공부 방법이 잘 맞았지만 어떤 수험생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학원 수업과 다른 내용을 자습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니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과 진도를 맞추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비문학에서 문단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자습시간에는 학원 교재 외에 다른 문제집을 선택해서 비문학 요약 방법을 연습하며 마스터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비문학 파트를 들으며 인강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학원에서 배운 방법에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습시간에 학원 교재 외의 것을 공부하되, 진도를 맞추어 공부하여서 효율적이고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 외에도 수험생활을 건디는 데 중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선생님들과의 조화, 원만한 교우관계와 부모님과의 소통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수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절실함과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신을 잃지 않고 발전시키는 데 제 수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여러분의 대입 성공을 기원하며 수기를 마칩니다.

3. 그 외의 조언들

재수를 하다보면 시험을 정말 자주 보게 됩니다. 6월, 9월 모의평가 외에 월레고사, 학력평가도 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자주 시험을 보면 무더질 만도 한데, 시험 결과가 나쁘면 항상 충격을 받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려 해도 사람이라면 시험을 망쳤을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능이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수능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대학을 못 갈 뻔 했네.'라고 생각하며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일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 채우되 모의평가 성적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월 모의평가를 망쳤지만, 수능에서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의평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큼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모의평가에서 어떤 성적을 받더라도, 수능은 잘 볼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제가 처음 재수학원에 왔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재수는 신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재수가 끝난 지금은 저에게 재수가 정말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제 삶의 태도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재수생활이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충실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